

کمپ션 인터내셔널: 30년의 도전
1952년 이래 컴패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왔다.
글: 메리 에릭슨(Mary Erickson)

1950년 6월 28일, 천둥 같은 포성을 울리며 공산군 탱크가 한국의 서울로 쳐들어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 중 하나가 시작된 것입니다. 1953년 마침내 전쟁이 끝났을 때, 150만 명의 군인과 10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으며, 산악지대가 많은 한반도는 황폐화되었습니다.

1952년 미국의 전도자 에버렛 스완슨이 한국에 왔을 때, 그는 대한민국의 군인들에게 설교하고 함께 기도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그가 본 광경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미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부랑자들이 문간에서 몸을 떨었고, 구걸하며 도둑질하는 누더기 차림의 아이들이 그의 옷자락을 끌어당길 때 그의 심금도 같이 울렸습니다.

스완슨 목사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한국을 떠날 때, 한 선교사 친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땅의 엄청난 필요와 유례없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성령님은 그 질문을 에버렛의 마음에 깊이 새기셨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길을 보여주소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친구들과 교회들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초기에 받은 이러한 선물로 그는 한국의 주택을 구입했고, 이는 후에 <믿음과 사랑(Faith and Love)>이라는 최초의 보육원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거지 소년들을 거리에서 데려와 보살폈습니다. 공황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 집을 열거나 마당에 천막을 쳐서 떠돌이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돈을 기부하여 쌀, 연료, 그리고 따뜻한 옷을 살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스완슨 목사는 특별한 일대일 후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한 달에 단 몇 달러로 가난한 한국 어린이들에게 음식 및 거처 그리고 의료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그의 모든 시간과 재능을 사역에 쏟아 부었고, 시카고 북쪽에 위치한 자택 지하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는 곧 빠르게 성장하는 사역의 기금을 처리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침내 1956년,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가 일리노이주 및 연방 정부에 등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축복하셨고, 스완슨 목사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한 우리의 훌륭한 후원자들과 지지자들에게 그 영광을 돌립니다.” 현지에서의 사역은 계속 번창했고, 직원들의 책임 또한 늘어났습니다. 1952년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1층짜리 사무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1만 명의 가난한 어린이들이 후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과 서양인들이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직원으로 합류하면서, 스완슨 목사 부부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사역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직원들과 지지자들의 관심과 동기를 표현할 수 있는 성경적 용어를 기관의 새로운 이름으로 사용하기 원했고,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님의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리하여 1964년, 고아로 버려진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의 이름은 캠페션이 되었습니다.

캠페션 사역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매년 캠페션 직원들은 이전에 후원을 받았던 어린이들이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중 두 사람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임자희(Im Ja Hee) 양은 페이스 앤 러브 칠드런즈 보육원(Faith and Love Children's Home)에서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한국의 광주 장로교 병원(Kwangju Presbyterian Hospital)에서 공인 간호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손익경(Son Ik Kyung) 박사는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덟 살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음식을 구걸하며 시궁창에서 배회하던 끝에, 당국이 그를 캠페션 보육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는 사랑받기 시작했고, 숙소와 음식, 옷, 교육 및 성경 공부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아 시절 그는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 그는 매주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자 명망 있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후원자가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요!

1965년 스완슨 목사가 뇌종양에 걸리자, 이사회는 베테랑 선교사 출신 헨리 하비 목사를 대표로 임명합니다. 미리암 스완슨은 부대표로서 남편의 사역을 이어갔고, 고아들을 향한 사랑이 지극했던 그녀는 “엄마”라는 칭호에 걸맞게 한반도를 계속해서 오가며 사역에 임했습니다.

컴패션은 1968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의 그 필요가 너무 커서 고아들과 버려진 어린이들, 장애 어린이들을 기관에서 지원하는데 그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안정되고, 전쟁 고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컴패션은 기관에서의 사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의 가난한 어린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주님은 컴패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향해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해외 프로그램 실장이었던 에드 김볼(Ed Kimball)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을 여행하면서 굶주림과 가난, 그리고 질병이 가난한 가정들의 삶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들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한 과부들을 대가족과 함께 남겨둔 채 혁명으로 죽거나, 또는 사고나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단지 몇 푼으로 굶주리고 있는 과부와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버려진 수천 명의 고아들에게 기관이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지만, 컴패션의 리더들은 결코 부모의 사랑이나 보살핌과 같을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만약에 컴패션이 과부에게 매달 두세 명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과부들이 자신의 자녀들 중 그 누구도 버리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1968년 인도네시아에서 가족 단위를 보존하기 위해 가족지원 프로그램(Family Helper Plan)이 세워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어린이들과 그들의 홀어머니 또는 장애인 아버지가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해,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인도와 다른 가난한 국가들에도 도입되었습니다.

컴패션의 현지 직원들은 아이티, 콜롬비아, 태국 등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다른 종류의 가난, 즉 '기회의 가난'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불우한 어린이들은 읽거나 쓰는 법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리적인 고립, 부족한 돈, 부족한 학교는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농부나 과부의 자녀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였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교육을 원하고 필요로 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중남미 대륙 현지 대표였던 윌리 에릭슨(Wally Erickson) 목사의 지시에 따라 컴패션은 카리브해와 중남미 어린이들의 필요에 맞게 학교 후원 프로그램(school sponsorship program)을 설계했습니다. 교육이 그들의 가장 큰 필요라는 것을 깨달은 컴패션은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수많은 그리고 아이들 특유의 필요를 발견할 때마다 컴패션의 리더들은 그들의 확고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모든 땅 또는 모든 세대에서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컴패션은 각 문화와 각 시대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늘 도전 받아왔습니다.

1970년 시작한 학교 후원을 통한 어린이 후원은 보육원이나 가족지원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운영되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의 어린이 후원금은 교사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교재, 학용품, 교복을 구입했습니다. 더불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많은 경우, 매일 영양가 있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학교 프로그램은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컴패션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컴패션 사역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많은 나라의 열정적인 사람들이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64년에는 캐나다 컴패션의 조직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캐나다인이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1975년 영국의 기독교 구호 기관인 티어 펀드(TEAR Fund)가 컴패션 인터내셔널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불과 3년 후 호주 후원자들이 그들 자신의 호주 컴패션을 결성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시 아래, 컴패션은 지속적인 성장을 누려왔습니다. 1976년까지 컴패션의 후원은 세 배로 성장하여 18개 국에서 30,000명 이상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컴패션은 더 큰 본부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1979년 10월 이사회는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Colorado Springs)에 7에이커(약 28,328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 새 건물에 대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1975년부터 컴패션 대표로 섬겨온 윌리 에릭슨은 신축 건물의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2년 뒤인 1981년 10월 3일, 컴패션의 리더십은 새로운 본부를 하나님의 영광과 가난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 봉헌했습니다.

이제 1982년입니다. 우리 컴패션은 지난 30년 동안의 하이라이트를 회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30년의 사역은 30년 간의 도전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1952년 한 나라, 한 프로젝트에서 35명의 거지 소년으로 시작한 컴패션은 1982년 현재, 31개국의 1,211 프로젝트에서 68,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스완슨 목사님의 주제곡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한 우리의 훌륭한 후원자들과 지지자들에게 그 영광을 돌립니다."